

시인의 마을



우리 동네 논밭의 삼 분의 이는 담배였다
거짓말 조금 보태면 말이 크롭다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의 목구멍 풀칠 방법이였다

니코틴 생산을 위한 논과 밭이 하나둘 생겨날 때마다
여기저기 건조실이라는 담배를 말리던 공간이 자리 잡았다

얼추, 습한 장마철이 담배의 수확시기였다
연탄불에 담배를 꼬들꼬들하니 말려줄 장소가 필요했다
조건은 바람이 술술 통하면서도 적당한 온기가 필요했던

그 공간에서 나는 알 수 있었다
부모님, 누나, 형님 같은
민초들의 버거운 삶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께 꾸지람을 듣거나, 그냥 친구가 보고 싶거나
아무 이유도 없이 발길이 옮겨지던 개똥이네, 소똥이네 건조실에는
이미 동네 아이들 다수가 잠을 청하고 있다

한 집에 일곱 여덟은 기본이었던 시절이었다
걱정은커녕, 자식 하나 보이지 않아도
어디서 잘 자겠지 하시던, 부모님의 넉넉함이 그리워진다

약동들의 손에는 그럴싸한 곰팡대가 텅 하니 자리를 잡고 있다
주저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펼쳐진 풍경이다
잘 말려진 담뱃잎을 손바닥으로 비벼 대충 쑤셔 넣는다

그렇게, 니코틴이 뽀뽀 터져 나오는 윈역의 담배 맛을 위해
너도나도 한 번씩 그 곰팡대를 빨아가며
뽀뽀담배로 툭툭툭툭하며 연기를 코와 입으로 쏘아댄다

어르신들의 기침 소리에 움찔하다가도 그 맛있는 식물을
폐 깊숙이 밀어 넣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고
기쁨, 한 번 울려다본 하늘은 파랗다 닳혀 마라볼 수 없다

도시의 이국적 담배밭에는
꼬물꼬물 담배 요정이 곰팡대를 물고 툭툭거리며
멋진 자세로 파란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담배기차처럼

담배

시詩를 담다

갑다가 익숙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카메라를 클릭하고 구도를 잡아 본다. 자세히 보니, 담배다. 어린 시절, 동네마다 가득가득 논과 밭을 채웠던 담배다. 동수네도, 마숙이네도, 철수네도, 모두 담배 농사로 먹고살았다. 한 여름, 장마철이면, 연탄을 태워 불가마를 이루던 건조실이다.

담배 경작은 쉽게 볼 수 없다. 대다수의 전담에는 고구마나 식용작물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담배가 자라고 있는 도시풍경이 낯설다. 그 낯선, 기억, 저편의 어린 시절을 시로 옮겨 보았다. 촌놈(a boor)이라면 추억의 사진 한 장이 그려지지 않을까?

혹여, 담배가 궁금한가? 인터넷 검색을 자판을 두드리지 말자. 갈아서, 아니면, 자전적 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주변을 눈에 담아 보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박 여 범

웅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사설

문체부장관 박보균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가치로 내걸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문제가 수두룩했다. 업선했다는 상당수 후보자들이 하자 투성으로 드러나면서 실망감을 키웠다.

총리 후보를 비롯 복지부, 법무부 후보 등은 국민 검증 단계에서부터 탈락했다.

다만 야당은 총리와 경제부총리, 문체부,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에 동의해 주었다.

하지만 문체부 장관의 경우 "정체성이 과연 한국인 맞느냐"는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30일 국민의힘 입당한 직후인 8월4일에 캠프에 합류했다.

특별 고문을 역임하는 등 소위 윤핵관 가운데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한편 그가 청문회에서 쏟아낸 답변은 황당했다.

일본 기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예도, 그는 '1965년에 일본이 돈을

지급했고, 그 돈을 받아 성장한 국내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 배상을 거부하며 내놓는 논리와 같다.

그는 일본한테 잘못된 역사에 대해 사과를 받지만, 보상은 우리도 잘 사니까 우리가 해주면 된다. 고 했다.

일본에서 청구권 자금을 받아도 항재철도 짓고 나라도 발전했으니까, 일본에서 받은 돈으로 발전한 기업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4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 워싱턴 DC 인근의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매입하기까지 산파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90년대 노태우·김영삼·김종필 3인이 작성한 '내각제 개헌추진 비밀 각서를 특종 보도했다. 그러나 햇속부터 '친일(親日) DNA 보관자'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여론이 많았다.

진주 효자4동 어르신 원예치료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한 지난 2020년 10월경 진주에서 원예치료 수업이 진행되면서 관심을 모았다. 당시 진주시 완산구 효자4동 동네복지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와 위원 10여 명을 초청해 원예치료 수업을 펼쳤다.

원예치료는 효자4동 통합돌봄 위원인 어느 복지원에서의 재능 기부로 이뤄졌다. 수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평소 우울증을 앓던 어르신들의 우울증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속에 진행됐다.

요즘 실버 원예치료 교실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어르신들과 함께 마을 화단을 가꾸는 곳도 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노인 외출이 줄고 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면서 적적함과 우울감이 더 깊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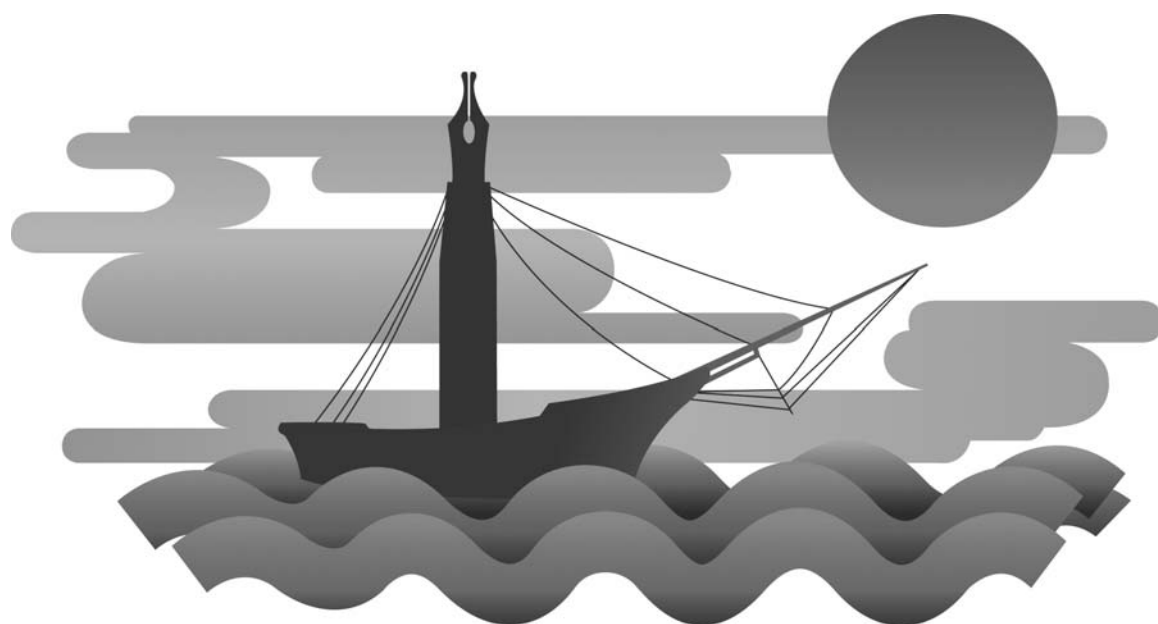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원예작품을 이용한 원예치료 교실이 필요하다.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예치료란 식물을 이용하여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의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씨를 뿌리고, 이것이 잘 자라도록 온갖 정성으로 가꾼다. 그 결과로 활짝 핀 꽃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과 희열을 치료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다. 원예치료에는 정원 가꾸기, 식물 재배하기, 꽃을 이용한 작품 활동 등이 있다. 마당이 있는 경우 텃밭을 가꾸면 좋다. 옥상이 있으면 옥상정원을 만들어도 좋다. 민간에게 제공하는 텃밭에서 주말농장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 원예활동은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무리가 없다.

노화를 최대한 늦추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이 곧 치매예방 활동이다. 오늘 당장이라도 작은 플라스틱 통에 흙을 담아 씨를 뿌려보자. 어르신들과 마을에 공동 화단을 가꾸는 활동도 해보자.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